

# 신안 섬에도 농기계임대센터... “농사짓기 쉬워졌네”

### 안좌면서 주민 150여명 참석 준공식

### 6억 투입...원판쟁기 등 농작업기 46대 갖춰

1004개의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이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여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읍면별 농기계임대센터 건립에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안좌면에서 농업인 단체 및 대표 농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좌면 농기계임대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안좌면 농기계임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안좌면 농업인들의 작기 영농과 농작업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비 6억여원이 투입된 안좌면 농기계임대센터는 4350㎡의 신축부지 329㎡ 규모의 센터 내에 원판쟁기 등 28종 46대의 농작업기를 갖추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08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으나 14개 읍면 전체가 섬으로 구성돼 선박편으로 군청 소재지인 압해읍까지 와서 농작업기를 빌려쓰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신안



군을 농업기술센터, 북부권,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5대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농기계임대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2010년에는 북부권(지도읍)과, 서부권(비금면)에, 2011년도에는 압해

면을 중심으로 중부권 농기계임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농작업기 임대수요가 급증하면서 권역별 농기계임대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변경해 2014년까지 전읍면에 농기계임대센터 설치할 방침이다. 이번 안좌면 농기계임대센터 준공은 읍면별 농기계임대센터 설치를 알리는 출발점이 됐다. 올 상반기까지 임자면, 자은면, 도초면 등 3곳에, 내년에 하의면과 장산면에 농기계임대센터를 설치하면 전국 최초 읍면별 농기계임대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 신안군의 설명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무안군 외유 중단·재추진 반복 주민들 “오락가락 행정” 맹비난

### “선거 생색내기” 지적도

대규모 해외연수를 추진하다가 비난에 직면한 무안군(광주일보 3월20일자 10면)이 이후 중단과 재추진 등 방침을 오락가락 바꾸면서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국가안보 위기와 영농철을 앞두고 군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잇따라 추진하면서 비난이 일자 해외연수 중단을 지시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많으며 반발해 결국은 해외연수를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22일 예정대로 11명이 출발하고 이후 25일 필리핀에 6명이 간 뒤 추후 여론이 잡잡해지면 예정대로 문화체험사업

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번 사업이 직원 부부나 1명을 해당 국가에 파견하는 방식인데다 여행비의 상당 부분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목적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직원과 해외연수국가에 따라 규정이나 지원 내역도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직원은 “추진과 중단, 재추진 등 군정이 직원의 입장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어떤 직원은 공짜로, 어떤 직원은 개인당 16만원씩 부담하는 등 일관성도 상실했다”고 토로했다. 군내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가 직원들에게 ‘생색내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하우스 딸기 수확 체험. 시원한 봄날씨를 보인 지난 23일 곡성군 곡성읍 대신정보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딸기를 따고 있다. 곡성군은 이들 관광객들을 위해 심진 김기차미를 추어의 증기기관차 타기, 시골밥상 체험, 딸기 화분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곡성군 제공>

## 여수 ‘히든베이호텔’ 특1급 공인

### 박람회 기간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 가장 높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여수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여수 히든베이호텔’(사진)이 특1급 호텔로 공인 받았다. 여수시는 24일 “순수 지역자본으로 건립된 여수 히든베이호텔이 한국관광협회가 실시한 자객심사에서 최근 특1급 호텔로 공인됐다”고 밝혔다. 히든베이호텔은 지난해 5월 개관한 이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지정 숙박업소’로 지정돼 독일, 이탈리아, 케냐, 오만 등 각국 대사와 장관 등 국외 귀빈과 허영만, 용재 오닐, 이장호 감독 등 예술인들의 숙소로 쓰였다. 히든베이호텔은 모든 객실에서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호텔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돼 숙박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레스토랑, 사우나, 연회장, 휘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최고시설의 고객편의시설을 갖췄다. 민방인 총지배인은 “이번 등급심사에서 히든베이호텔은 시설뿐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도 수도권 특급호텔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고흥병원, 24시간 산부인과 운영

### 전남도 분만 취약지 설치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관내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고흥종합병원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고흥종합병원은 국비와 지방비 1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분만실, 진통실, 신생아실 등을 마련하고 초음파, 인큐베이터, 분만대 등 의료장비를 갖춘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을 채용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분만 등 산부인과 진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운영, 보건소와 연계한 입산부 철분제 보급사업,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 증진사업 등 입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보건사업도 벌인다. 분만실이 설치되면 그동안 관련 시설이 없어 진찰과 출산을 위해 광주, 순천, 여수 등의 도시로 이동했던 이 지역 산모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 중 분만 취약지를 뽑아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중부권

# 화순 잠정햇살마을 ‘농어촌뉴타운’ 입주 시작

### 전통·현대적 감각 갖춘 한옥 50채 등 총 200세대

### 귀농·농업인에 분양...화순전대병원 등 최적 요건

화순군은 24일 “농촌지역에서 보기 드문 명품 주거단지인 잠정햇살마을을 농어촌뉴타운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잠정햇살마을을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 17만9540㎡ 부지에 전통의 미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한옥 50세대와 선진국의 주택양식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타운하우스 150세대 등 모두 200세대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귀농인과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분양중이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살맛 나는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잠정햇

살마을 뉴타운의 입주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자로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영농을 계획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화순 잠정햇살마을 농어촌뉴타운은 능주면사무소 소재지에 있어 교통, 문화, 상업시설 등 제반점유여건이 양호하고, 화순읍에서 10km 이내이며,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까지 26km 거리에 있다. 또 광주~화순 간 시내버스 종점도 100m 이내 거리에 있어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명문고인 능주고가 인접해 있으며, 화순전대병원 등 종합병원 4곳이 10km 안팎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도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잠정햇살마을을 농어촌뉴타운이 들어서면 따라 목사골 능주가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운하우스는 이미 임대계약이 완료됐으며, 현재 미분양 한옥 20여세대에 대해 선착순 입주자 모집 중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5월 대나무축제 준비 보고회. 담양군이 오는 5월3일 열리는 ‘제15회 담양대나무축제’의 성공 개회를 위해 지난 20일 축제준비 보고회를 열었다. 군과 대나무축제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주제인 ‘천년의 숨결, 푸른 대숲 이야기’를 구현하고 ‘친환경 녹색축제’의 기틀을 다지는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 ‘국제농업박람회’ 2015년 나주서 열린다

(재)전남도농업박람회조직위, 내년 2월 정부에 개최 신청을 연말까지 인력 확충 조직 정비...타당성 조사·심의 계획

제2회 국제농업박람회가 2015년 10월에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다시 선보인다.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24일 “2015년 제2회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정부에 개최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첫 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해 10월, 25일간 개최됐으며 앞으로 3년 단위로 열 계획이다. 애초 4년 단위로 계획했으나 공백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과 2년은 막대한 개최 비용 부담 등이

유료 3년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업미래관, 생명농업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됐다. 이 박람회는 농산품과 농기계 전시, 국제교역, 농촌 어메니티(amenity)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농업박람회다. 2002년 농산물 전시회로 시작한 농업박람회는 성공 개최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지난해 정부 승인과 지원을 받은 첫 국제박람회로 개최됐다. 박람회 사무국은 올 연말까지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정비한 데 이어 박람회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뒤 내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 심의를 거쳐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제1회 박람회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25일간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를 주제로 열렸다.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친환경 농도인 전남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유무역협정(FTA)확산에 따른 국내농업의 활로 개척, 친환경 농업의 미래비전 제시 등을 위해 1회 성공을 토대로 2회 개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미백 개선 기술 이전 등 한방화장품 활성화 나서

### 도한방산업진흥원

전남도한방산업진흥원이 자체 개발한 한방화장품 기술을 지역 업체에 기술이전 하는 등 한방화장품산업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도한방산업진흥원은 24일 “한방 미백 개선화장품 등 2가지 제품을 ㈜해달마을 기술료(4000만원)와 매출액 2%를 받는 조건으로 기술이전했다”고 밝혔다. 전남도한방산업진흥원은 2009년 개원 이후 기능성 한방 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 ‘심황세계가미방’ 등 한의약 처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한방화장품을 개발했다. 해달마을은 신제품 기술을 활용한 자체 브랜드를 개발, 연 매출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4계절 꽃이 있는 담양’ 만들기

### 군, 축녹원·소쇄원 등 ‘1읍면 1꽃거리 1꽃마을’ 조성

담양군이 아름다운 꽃길과 꽃마을 조성을 통해 ‘4계절 꽃 피는 담양’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24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과 관광객들에게 생태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변과 하천변의 유휴지를 활용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요도로변은 물론 축녹원과 소쇄원 등 관광지 마을길 등에 자연친화적인 다년생 화초를 중심으로 디자인된 꽃길과 꽃마을을 조성해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미리 준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1읍면 1코스모스 길 조성사업과 1읍면 1꽃거리 1꽃마을 조성사업을 동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미리 지역의 관광문화와 연계해 아름답고 이야기가 있는 ‘4계절 꽃이 피는 담양’을 조성해 담양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